

미술품부터 ESG... 통신사, 신사업 연계해 NFT 시장 공략

‘탈통신’ 넘어서 빅테크 방점
SKT CGV 등 NFT 갤러리
KT ESG 테마로 NFT 발행
LGU+ 롯데홈쇼핑 등과 협업

최근 대체불가능토큰(NFT) 시장의 인기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통신업계는 반대행보를 보이고 있다. ‘탈통신’을 넘어 아예 빅테크에 방점을 찍겠다는 모습이다. NFT를 접목한 아트 갤러리를 직접 운영하는가 하면, NFT로 ESG 활동까지 알리고 있다.

6일 NFT 데이터 제공 업체 NFT고에 따르면 NFT 시장 시가총액은 지난 달 27일 기준 약46억달러(약6조2353억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약160억달러(약 21조6880억원)에서 약120억달러(약16조2660억원) 가까이 빠진 것. 다만, 지난해 약 178억 달러까지 치솟았던 것을 고려하면 잠재된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이동통신 3사와 게임사 등 ICT업계에서는 NFT 발행부터 신사업 연계를 통해 사업 확



SK텔레콤이 CJ CGV와 함께 서울 코엑스와 강남역 일대 대형 미디어월에서 대체불가능토큰(NFT) 예술을 전시하는 ‘오프라인 NFT 아트 갤러리’를 운영한다.

장에 나서고 있다.

먼저 SK텔레콤은 대중이 대체불가능토큰(NFT) 예술을 접할 수 있는 ‘오프라인 NFT 아트 갤러리’를 운영을 본격화한다. SK텔레콤은 지난 3일 CJ CGV와 서울 코엑스와 강남역 일대 대형 미디어월 구간에서 ‘오프라인 NFT 아트 갤러리’를 운영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실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코엑스 지하에 설치된 대형 화면에는 화려한

영상미를 뽐내는 유화 작품들이 펼쳐져 있었다. 생동감있는 작품들은 지하공간을 미술관으로 탈바꿈 시켰다.

오프라인 NFT 아트 갤러리는 10월 NSYME 작가, 김보슬 작가, 김병중 작가와 콜라보한 4인의 신진작가, 11월부터는 장승호 작가의 NFT 작품을 전시 중이다. 이후에도 작가들을 지속 발굴해 전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코엑스 NFT 아트 갤러리에는

키오스크가 설치돼 있다. 이에 따라 일반 대중들도 전시중인 NFT 예술작품을 현장에서 구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이번 전시에서는 탑포트에서 판매 중인 NFT 작품도 전시한다. 탑포트는 디지털 아트가 NFT 형태로 발행돼 창작자와 수집가를 연결하는 플랫폼이다.

김중승 SK텔레콤 Web3 팀장은 “최근 소비재, 엔터테인먼트 등 전통 Web2 기업들이 NFT를 자사의 멤버십과 결합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확대되고 있다”며 “NFT와 생성형 AI 기술이 결합된 디지털 아트가 주목을 끌면서 NFT 시장의 새로운 도약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KT는 NFT 프로젝트에 ESG 콘셉트를 접목했다. KT는 지난해 진행한 KT민클x라운 NFT 프로젝트의 2차 NFT를 발행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NFT 구매자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그 안에서 얻는 혜택을 자연스럽게 대중에게 확대하는 모델을 추구했다. KT는 프로젝트 협력기업들과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NFT 판매금액의 일부를 KT민클x

라운 NFT 프로젝트 이름으로 기부해 NFT를 통한 ESG와 사회공헌을 실천한다.

SK텔레콤도 최근 탄소배출권 플랫폼 업체인 윈클과 ESG를 소재로 NFT 사업을 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SK텔레콤의 NFT 유통 플랫폼인 탑포트에서 ESG 마케팅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NFT 발행을 지원하겠다는 게 이 협약의 핵심이다.

LG유플러스는 인천광역시, 롯데홈쇼핑과 함께 대체불가능토큰(NFT) 생태계 확장에 나섰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8일 자사 NFT(무너크루), 인천광역시 NFT(히어로즈), 롯데홈쇼핑 NFT(벨리움)를 보유한 고객(홀더)에게 3사가 신규 발행한 NFT 우선 획득권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협력이 NFT 소장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각사의 고객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공·민간 협업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SKT, 韓 AI 스타트업 2곳에 94억 투자

‘K-AI 얼라이언스’ 확장 가속화
‘올거나이즈’ 기업 AI 앱마켓 개발
‘임프리메드’ AI 헬스케어 협력

SK텔레콤이 주도하는 K-인공지능(AI) 얼라이언스에 한국 AI 스타트업 ‘올거나이즈’와 ‘임프리메드’가 합류했다. 이로써 K-AI 얼라이언스 참여기업은 총 16곳이 됐다.

SK텔레콤은 거대언어모델(LLM) 올인원 솔루션 기업인 올거나이즈와 AI 기반 반려동물 및 인간 대상 항암제 예후 예측 모델 개발 기업에 각각 400만 달러(약 54억원), 300만 달러(40억원)를 투자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올거나이즈는 2017년 설립된 스타트업으로 거대언어모델 기반의 생성형 A

I 인공지능 솔루션을 통해 기업 문서를 빠르게 분석, 요약해 제공하는 등 업무 생산성 혁신을 지원하는 다양한 AI 앱과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미국, 일본, 한국에서 200여곳 이상의 고객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프리메드는 2017년 미국 실리콘밸리에 설립된 AI 기반 생명공학 스타트업이다. 축적된 암 환자의 데이터를 AI 알고리즘으로 분석해 최적의 항암 치료제를 추천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우선 올거나이즈와 협력을 통해 LLM 기반 AI 앱 마켓 공동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거나이즈는 기업들이 원하는 AI 앱을 골라 법률, 인사, 마케팅 등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LLM 앱 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기업 내 데이터를 기반으로 방대한 문서

를 요약해 일간 리포트로 제공해주거나 고객의 복잡한 질문에 대한 답을 다양한 형태의 사내 문서에서 찾아출처를 함께 표기해 환각현상을 줄이는 생성형 인공지능 앱들이 모여 있는 마켓이다.

양사는 올거나이즈의 앱 마켓에 있는 100여 가지 AI 앱에 SKT의 AI, 클라우드 등 기술력을 접목해 LLM 기반의 기업용 AI 앱을 더욱 고도화 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SKT가 출시 예정인 ‘인텔리전스 플랫폼(Intelligence Platform)’과 연동해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창수 올거나이즈 대표는 “SK텔레콤 AI 피라미드 전략과 올거나이즈의 LLM 인프라, 미들웨어, 서비스 경험과 노하우 등 양사 간 시너지를 통해 미국과 일본에서 기업용 업무 자동화 AI 보급을 더욱 가속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남영 기자

LGU+, 산업 안전관리 DX 솔루션 출시

중소 안전관리 부담비용 낮춰

LG유플러스가 내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앞두고 중소기업에 위한 안전관리 솔루션을 선보였다.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로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부담 비용을 낮춰 줄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는 대한 산업안전협회, 유엔이와 클라우드 기반 안전관리 디지털전환(DX) 솔루션 ‘스마플’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국내 산업 안전 전문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서비스를 설계하고, 환경·안전 전문 솔루션사인 유엔이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맡았다. LG유플러스는 안정적인 인프라 운영을 담당한다.

스마플은 아날로그식 중소 산업현장의 안전 관리 업무를 PC와 스마트폰으로 쉽고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게 돕는다.

사업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업장현황 관리, 위험성평가, 안전교육, 중대재해발생 신고, 안전점검 등 14개 기능을 웹과 모바일을 통해 윈스톱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이행 항목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스마플은 지난 4월 1일부터 89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픈베타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구남영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한불상공회의소, 테크 산업 생태계 발전 앞장

‘라 프렌치 테크’ 10주년 기념 행사

한국과 프랑스 테크 산업 생태계 발전과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는 ‘라 프렌치 테크(La French Tech)’가 10주년을 맞아 행사를 열었다.

6일 한불상공회의소는 노보텔 동대문에서 라 프렌치 테크 10주년 기념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특별히 한국과 프랑스 스타트업 교류를 위한 행사인 ‘테크포굿 투어 2023(Tech4Good Tour 2023)’ 중 열렸다.

라 프렌치 테크는 2013년에 만들어진 프랑스 정부가 주도하는 자국 스타트업 지원책으로 전세계 100여 개 도시에서 스타트업 기업의 해당 국가 진출을 돕고 있다. ‘프렌치 테크 서울(French Te

ch Seoul)’은 2016년 현재 창립돼 476명의 회원과 149개의 한국 및 프랑스 기업들이 소속돼있다.

이날 라 프렌치 테크는 한국과 프랑스 두 국가를 오가며 활약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활약과 뒤를 받쳐준 라 프렌치 테크의 역할에 관한 담화가 오갔다.

니콜라스 메르시에(Nicolas Mercier) 라 프렌치 테크 서울 공동 대표는 “10주년 기념행사는 한국과 프랑스가 협력하며 공유해 온 기술과 혁신의 성과를 돌아보기 위한 자리”라며 “10년 동안 약 30개의 유니콘 기업을 배출하고 2022년 상반기 기준 45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하면서 놀랄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양국의 테크 스타트업 분야에서의 협력은 엄청난 잠재



‘라 프렌치 테크’ 10주년 기념행사장에서 건배를 하고 있다. /한불상공회의소

력을 입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라 프렌치 테크 서울 이사회는 이날 행사에서 국내 산업 생태계 핵심 플레이어들과 업무협약도 맺었다. 컴업, 비바테크, 한국엑셀러레이터협회, 디지털 혁신 네트워크, 디이그제큐티브센터, 창업지원포털, 한불상공회의소 등이 공동으로 업무협약을 맺고 양국 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기로 했다.

/김서현 기자 seoh@

카카오헬스, 美연속혈당측정기 ‘G7’ 선택

휴온스와 국내 판매 협력

카카오헬스케어는 휴온스와 미국 텍스콤의 차세대 연속혈당측정기(CG M) ‘G7’에 대한 국내 판매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카카오헬스케어 황희 대표, 휴온스 윤상배 대표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휴온스는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멸균 관리 등 생활 밀착형 의학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털 헬스케어 기업으로 미국 텍스콤의 연속혈당측정기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공급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계약을 바탕으로 카카오헬스케어의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을 통해 텍스콤의 ‘G7’을 국내 이용자들에게 소개 및 판매하고 데이터 기반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오른쪽)와 윤상배 휴온스 대표가 6일 카카오헬스케어 본사에서 열린 미국 텍스콤의 차세대 연속혈당측정기 ‘G7’에 대한 국내 판매 협력 계약식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카카오헬스케어

초개인화 건강관리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내년 1분기 출시 예정인 텍스콤의 G7을 국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당뇨 환자들의 편의 증진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구남영 기자